

한국화 100여 년의 역사 회고

우리 그림이 가야할 길은?

지난 7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기획전시 〈20세기 '한국화'의 역사〉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 전통회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아카이브 300여 개, 작품 30여 점을 포함하여 한국화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진심어린 조언이 공개되며 미술계의 이목을 끌었다.

글 문지혜 기자 사진 박성일 기자



우선, 한 가지만 짚어보자. '한국화란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2017 기획전시 〈20세기 '한국화'의 역사〉전을 준비하며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 등 미술전문가 24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취합한 결과 한국화의 역사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해 '한국화 용어의 논쟁'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답변자들은 용어의 의미가 애매하고

현대적인 추세를 반영했을 때 해당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정체성부터 흔들리는 우리 그림은 글로벌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 뒤를 이어 80년대 젊은 한국화 작가들에 의해 전개된 '80년대 수묵화 운동'과 '천경자 위작 논란'이 각각 주요 이슈 2위, 3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미술계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김달진 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배경에 대해 한국화의



▲ 김달진 관장

정체성과 위상을 찾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생활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이 서구화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그림이 서양의 문화에 밀려 저평가됐다는 점이 안타까워요. 실제로 경매가만 하더라도 한국화는 서양화와 비교했을 때 낙찰총액이 현저히 낮죠. 이번 전시로 인해 한국화가 미술사 속에서 새롭게 정립되고 발전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전시 팸플릿부터 작품까지,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시는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스페이스 홍지에서는 지난 7월 막을 내렸고,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는 오는 11월까지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시의 방점은 아카이브에 찍혀있다. “티켓 한 장이지만 여기에는 전시를 대표하는 주요 작품 1점을 내걸죠. 옆에 적힌 글씨 폰트나 디자인 구성도 눈여겨 보면 재밌어요.” 김 관장이 안내 데스크 한 켠에 전시된 옛 전시티켓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말했듯 전시장에 놓인 티켓, 사진, 전시회 팸플릿 등 소소한 물건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미술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다. 세월의 흔적과 그 당시 미술적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소중한 유물이기 때문. 주요 자료로는 <고암 이응로 동양화개개인전람회 목록>(1949), <제1회 국립회전>(1960), <동양화 여섯분 전람회>(1971) 팸플릿 등이 있다. 이는 거액을 주고도 얻을 수 없다는 김 관장의 말에서 자료를 모으고 보존하기 위해 힘써온 그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또한 전시장 입구에는 박물관이 소장한 각종 아카이브 색인이 목차별로 잘 정리돼 있다. 인터넷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중한 미술사 자료들을 찾기 쉽도록 한



▲ 경향신문 1959. 2. 20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아카이브)

“현대 우리 동양화가 다른 부문보다 침체하고 활발치 못한 원인은 이조 이래 남화양식의 산수화가 화단의 주류를 이루어 왔고 (중략) 우리 세대들은 그런 병든 유산을 고수하기 보다 현대 우리 시대를 모색하는데 더 정열을 쏟아야 하니 (중략) 모든 병든 요소를 제거하여 한국화화의 새로운 전통의 확립을 위하여 작가의 정신적 혁신이 절대 필요하다.”



▲ 장우성전 초대권 1988.8.19.-8.30, SEIBU, 일본, 7×18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아카이브)

것. 심도있는 연구자료에 목마른 전문가들에게 박물관의 전시공간은 오아시스나 다름없다. 한국화가 10명의 친필 원고도 전시돼 있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그들의 작품세계와 한국화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미술계의 주요 논점에 대해 공유함과 동시에 새로운 아카이브를 만들어냈다. 전시를 새로이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의미있는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세심히 신경쓰는 김 관장의 모습에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이번 전시는 그야말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기에 가능했으리라. 방대한 자료가 가리키는 한국화의 이정표는 과연 어디일까? 이에 대해 잠시라도 고민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전시회는 뜻깊을 것이다. **민화**



20세기 ‘한국화’의 역사

일시	7월 7일(금) ~ 11월 11일(토)
장소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서울 종로구 홍지문1길 4
문의	02-730-6216

한국화 100여 년의 역사 회고

우리 그림이
가야할 길은?

지난 7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기획전시 <20세기 '한국화'의 역사>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 전통회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아카이브 300여 개, 작품 30여 점을 포함하여 한국화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진심어린 조언이 공개되며 미술계의 이목을 끌었다.

글 문지혜 기자 사진 박성일 기자



우선, 한 가지만 짚어보자. '한국화란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2017 기획전시 <20세기 '한국화'의 역사>전을 준비하며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 등 미술전문가 24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취합한 결과 한국화의 역사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해 '한국화 용어의 논쟁'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답변자들은 용어의 의미가 애매하고

현대적인 추세를 반영했을 때 해당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정체성부터 흔들리는 우리 그림은 글로벌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 뒤를 이어 80년대 젊은 한국화 작가들에 의해 전개된 '80년대 수묵화 운동'과 '천경자 위작 논란'이 각각 주요 이슈 2위, 3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미술계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김달진 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배경에 대해 한국화의



▲ 김달진 관장

정체성과 위상을 찾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생활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이 서구화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그림이 서양의 문화에 밀려 저평가됐다는 점이 안타까워요. 실제로 경매가만 하더라도 한국화는 서양화와 비교했을 때 낙찰총액이 현저히 낮죠. 이번 전시로 인해 한국화가 미술사 속에서 새롭게 정립되고 발전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전시 팸플릿부터 작품까지,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시는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스페이스 홍지에서는 지난 7월 막을 내렸고,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는 오는 11월까지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시의 방점은 아카이브에 찍혀있다. “티켓 한 장이지만 여기에는 전시를 대표하는 주요 작품 1점을 내걸죠. 옆에 적힌 글씨 폰트나 디자인 구성도 눈여겨 보면 재밌어요.” 김 관장이 안내 데스크 한 켠에 전시된 옛 전시티켓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말했듯 전시장에 놓인 티켓, 사진, 전시회 팸플릿 등 소소한 물건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미술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다. 세월의 흔적과 그 당시 미술적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소중한 유물이기 때문. 주요 자료로는 <고암 이응로 동양화개개인전람회 목록>(1949), <제1회 국립회전>(1960), <동양화 여섯분 전람회>(1971) 팸플릿 등이 있다. 이는 거액을 주고도 얻을 수 없다는 김 관장의 말에서 자료를 모으고 보존하기 위해 힘써온 그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또한 전시장 입구에는 박물관이 소장한 각종 아카이브 색인이 목차별로 잘 정리돼 있다. 인터넷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중한 미술사 자료들을 찾기 쉽도록 한



▲ 경향신문 1959. 2. 20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아카이브)

“현대 우리 동양화가 다른 부문보다 침체하고 활발치 못한 원인은 이조이래 남화양식의 산수화가 화단의 주류를 이루어 왔고 (중략) 우리 세대들은 그런 병든 유산을 고수하기 보다 현대 우리 시대를 모색하는데 더 정열을 쏟아야 하니 (중략) 모든 병든 요소를 제거하여 한국회화의 새로운 전통의 확립을 위하여 작가의 정신적 혁신이 절대 필요하다.”



▲ 장우성전 초대권 1988.8.19.-8.30, SEIBU, 일본, 7×18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아카이브)

것. 심도있는 연구자료에 목마른 전문가들에게 박물관의 전시공간은 오아시스나 다름없다. 한국화가 10명의 친필 원고도 전시돼 있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그들의 작품세계와 한국화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미술계의 주요 논점에 대해 공유함과 동시에 새로운 아카이브를 만들어냈다. 전시를 새로이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의미있는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세심히 신경쓰는 김 관장의 모습에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이번 전시는 그야말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기에 가능했으리라. 방대한 자료가 가리키는 한국화의 이정표는 과연 어디일까? 이에 대해 잠시라도 고민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전시회는 뜻깊을 것이다. **민화**



20세기 '한국화'의 역사

일시 7월 7일(금) ~ 11월 11일(토)
장소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서울 종로구 홍지문1길 4
문의 02-730-6216